

(財)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 第17回理事会

平成8年8月

## “젊은이들 향락 행위 자제 해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산산국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훈성거리고 있다. 균형점수점진과 침조적인 노력은 시름해지고 도덕성·상실과 한라주의, 과소비증후가 만연해 있다. 특히 과소비는 대이상·반치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르렀다.

사실 과소비는 지금의 중요성을 일

워 낸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아니라 반관을 모르는 젊은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에 찌들었던 부모 세대가 보상선으로 주는 용돈으로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

일정한 소득도 없이 쓸쓸이 빠진 것이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다. 이제 다시 한 번 노동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기 힘을 들여야 한다. 국

적 용돈은 웃자랑과 고급 승용차의 행렬이 지배하고 있는 대학가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도서관과 연구실로 산이립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밝아오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태평양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젊은 세대의 창조적 능력과 노력으로 경제 뿐 아니라 문화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한다. 그 실천의 하나로 먼저 과소비증후 주방에 젊은층이 앞장시자.

【박경영·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 과소비증후·민족

## “언론이 해결책 제시에 앞장을”

요즘 경상수지 저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과소비증후가 만연해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언론에서도 이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과소비 실태를 나열하고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디딤돌이다. 물론은 국민이 정신적 자각을 통해 소비행태를 바로잡자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이는 마치 모두가 양심을 지켜 도덕원칙을 믿지는 믿고 다른 바 없다.

언론이라면 나름대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 국민여론을 옮기면서 형성하고 정부의 정책 수립에도 일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선 과소비의 근원을 정확히 찾

아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9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64만 원이다. 또 근로소득은 세원이 100% 노출되므로 수백, 수천만 원 하는 호화가구를 사고 호화관광을 일삼는 등의 과소비는 근로소득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재산소득, 사업소득이 과소비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재산세부과와 과표가 현실화하지 못하고 상식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사업소득자들의 소득신고 액이 증인되는 한 블로소득, 땅주소득의 창궐은 막을 수 없고 조세형평도 불가능해 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조세정책 없이 사회장이나 국민통합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당장 혁기적인 조세개혁과 철저한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가 없는 한 어떤 도덕적 캠페인도 크게 소용될 수 없을 것이다.

언론은 일관성 기사거리로 이 문제를 다루지 말고 경제정의 확립과 진정한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주기 바란다.

언론의 시망은 사실의 신속정확한 보도 뿐 아니라 정의의 옹호와 학산에도 있다고 본다.

【황영주·서울 강서구 가양동】

### 장애아 입학거부 유치원 풍토 개탄

한국의 일부 유치원에서 소아마비 어린이들의 입학을 거부했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의 교육에 지장을 주고 진도를 따라오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 유치원에서는 장애아 풍을 받아들이자 6개월 만에 원생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60~70년대만 하더라도 나라 형편이 어려워 장애인을 미처 제대로 살피는 여유가 없었다. 소아마비를 앓은 나도 정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81년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13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살고 있다. 내가 계속 한국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하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국민총생산이나 국민의 소비성향에 있는 것 이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에 있다. 미국에서 1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함을 담한 적이 없다. 경상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사실이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어울려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논다. 유치원에서 양로원까지 차별



이 없다.

장애인도 적절한 교육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상인 못지 않게 활동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린 둘도 한 손이 불편한 장애인이다. 미국은 항후 4년동안 장애인이 다스리는 나

라가 될지도 모른다. 월드컵을 유치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선진화할 때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고동운·미국 캘리포니아주 그리니다 월스】

## 정부, '여성기금' 협조요청 거부

### 군위안부 보상 관련

정부는 군대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업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 기금'(여성기금)이 이를 지급하기 위해 해온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여성기금은 오는 8월 15일부터 이를 지급하려던 방침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부 관계자는 7일 "여성기금의 운영진의 위원인 다카하시 쇼지 교수(쓰다쥬쿠대) 등이 위안부 피해자 명부를 제공해 달리면서 수 차례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해 왔다"며 "지난 5일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엔인권위가 지난 4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제작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한 민족 피해자 개별보상은 피해자와 관련단체가 낭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기금 관계자들은 지난 달 31일 서울을 방문해 10여명의 군대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1인당 2백만엔의 기금 수령권을 설득했으며 지난 5일 외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태호 기자

### "한국기업 영문 광고판

#### 나진·선봉에 이미설치"

북한 나진·선봉 투자설명회를 위해 내한했던 이안 데이비스 유엔개발계획 부자고문은 7일 오후 "나진·선봉지구에 한국 기업의 영문 광고판이 이미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박한수 기자

### ハノキル 漫画下闇

## ホンマでアラカルト

ナニバ7  
박시백

この間で受け取った  
いいじゅうじ、中川政  
府からは、五二三〇万円  
もおひんごから



民間慰労金

受け取っておこう  
とい願わくは。

日暮時草皮

卷之三

主婦は、30才の支援金

新編和漢書

品。内訳は即席ラーメンと  
即席スープが十二万七千三  
百四食、乾パン三千五百  
食、医薬品一千四百六品だ。  
一方、総聯東京都大田支  
部は二月十五日から八月  
三十日まで、馬鹿總舞山に  
在る「馬鹿總舞山」の舞妓入ら  
る遊館にて、遊館への支拂  
金を徴収する旨の看板(22号)  
を掲げて居た。

當ては七月十五日から八月  
初旬まで、被災地に食糧品  
四十キロを送る運動を繰り広  
げ、目標の倍額となる八十分  
の支援金を募めた。五  
日、総聯東京都本部に伝達  
した。

初步的に把握されただけでも、今回の大洪水によつて多くの財産被害」災害民が生まれた。

貴海南北道、平安南道は、二、三百間に四百七十  
五、七百三十、四百の雨量を記録し、住家と公共施設、  
炭坑、鉱山をはじめとする工場や工場、施設、田ん  
ぼが浸水されたは埋没したり破壊した。

# 民族大团结実現へ

# 民族大团结実現へ 13~15日 第7回汎民族大会ソウルで

13 ~  
15 日

## 第7回汎民族大会ソウルで

側本部議長の姜希南牧師ら役員、因縁者のほとんどを逮捕するなど、組織の壊滅を図ってきたなかで、南側は大きい。すでに北側と海外本部は、代表派遣を表明しており、これでソウル開催の条件は整つたことになるが、金泳三が各代表の受け入れを拒否していることから、ソウルでの開催は微妙だ。

A cartoon illustration of a man in a suit holding a large check for 200 million yen, with a speech bubble above him containing the text "あ、金がかかるんだ。" (Ah, it's expensive.)

金でつる

# ソウル開催実現へ

に、南側と海外の汎民族組織との連携のもとで進めてきた大会準備事業をさらに本格化する対策について討議した。

とくに、ソウル大会に参加する代表派遣準備活動に取り組む問題や、内外の統一分裂主義勢力の弾圧や妨害策動を粉碎し、大会を成功させる問題が強調された。また、白仁俊議長を委員長に第七回汎民族大会北側地備委員会を構成した。

10.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number of hours worked by each employee in a company.

平安北道・江原道 開城  
内でも、貯水池の堤防の崩壊によつて漏が崩れ、また高圧線鉄塔と電柱が倒れたほか、人的被害、財産被害もあつた。

で  
鮮魚

華南人民民主專政



# Sex slave redress in offing

## Philippine 'comfort women' first to get money

**News**

The government-initiated Asian Women's Fund will begin paying atonement money Wednesday of ¥2 million each to Philippine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for the Imperial Japanese Army during World War II, fund officials said Monday.

The fund ran Tuesday announcements on application methods in two English-language newspapers in the Philippines. It also set up a local office to take calls and letters from applicants.

About seven former sex slaves — euphemistically called "comfort women" in Japan — are expected to apply initially, the officials said. The fund will accept applications for the next five years.

Officials said the Asian Women's Fund is trying hard to make the first payments a day before the 51st anniversary of Japan's surrender in the war, but whether it can actually do so is not clear.

Payments to the victims from South Korea and Taiwan who oppose the project remain in question, officials added.

Former comfort women in South Korea and Taiwan strongly oppose any compensation by the private fund, and deman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compensate them directly and officially apologize for their ordeal.

The payments will be ac-

companied by a letter of apology from Prime Minister Ryutaro Hashimoto, the officials said.

The fund was established last year under the government of then Prime Minister Tomiichi Murayama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war.

According to the fund's officials, those eligible to apply for the payments are Philippine victims of sexual slavery who were alive when the fund was set up July 19, 1995. In the case of Philippine women who died after that date, their families can apply, the officials said.

The Philippine government,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LILA Pilipina, and the Japanese Embassy in Manila are discussing their involvement in the screening and qualification process. The Japanese fund will not be involved in the qualification process but will honor the decision by the three parties, a fund official said.

The group has urged the fund not to contact the victims directly but instead work through an independent committee it has established.

Last July 19, the fund officially decided to present the money in lump sums to about 300 of the surviving comfort women in South Korea, the Philippines and Taiwan.

In the Philippines, some former sex slaves have split from Lila-Pilipina because it

reversed its previous stance and decided to cooperate with the fund.

Historians estimate that before and during World War II, more than 200,000 women, mostly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in frontline brothels by the Japanese military.

### Women decry fund

Two former sex slaves of the Imperial Japanese military demanded Monda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dmit its legal responsibility for wartime crimes and not try to force "atonement money" through a private fund onto surviving victims.

An urgent news conference was called by citizens' groups opposing the government-initiated Asian Women's Fund, which plans to start disbursing ¥2 million in consolation money to each of about 300 former sex slaves in South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as early as Wednesday.

"I will oppose the Asian Women's Fund until the day I die," said Lee Kwi Pun, a South Korean former sex slave. "I demand a sincere apology and a release of accurate facts (of the sexual slavery) to the world."

Another victim, 73-year-old Hwang Chu-wol from Taiwan, said the sex-slave experience was so painful she could not talk about it until a few years

ago when she consulted with the Taiwanese legislature on how she could demand redress for the indignity.

Hwang was referred to the 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 which has gathered information on former sex slaves and compiled a list of the women, she said.

"I want to confess everything and receive justice," Hwang said. "The Japanese government at that time treated us Taiwanese girls as if we were pigs or dogs."

Jean Chang, a representative of the 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 called the fund's motive "deceptive."

"What they are trying to do now is exactly the same as what they did to colonize us back then," Chang said. "They completely mock the aged women."

Chang added that, if the Japanese government fails to admit it wa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wartime act, the group will lobby against the government's bid to win a permanent seat on the U.N. Security Council.

### Pyongyang hits fund

North Korea on Monday criticized Japan's planned payments from a private fund to compensate Asian women forced into sexual slavery for Japanese soldiers during the war and called for the Tokyo government's direct indemnity.

8/13/96 J.T.

國際公聴会に中國からの元  
慰安婦として名乗り出た方  
衆がいました。度日の米

## 「力ネより名譽を」

元慰安婦 民間基金を批判

市都内 団体で集会

従軍慰安婦問題の民間基  
金による解決を反対する市  
民団体が十一日午後、東京  
都内で「すべての戦後補償  
を求める集い」を開き、約  
四百人が中國や韓国からの  
被害者の目に目を焼けた。  
韓国から参加した元慰安  
婦の李貴粉さんには「か

つては私とともに戦後補償  
請求運動をした市民団体の  
メンバーがアジア女性基金  
と一緒になってウソをつい  
てまで基金からの力ネを被  
害者のおねあさんらを受け  
取らせようとしている。裏  
切られた恥いだ」と語り、  
運動の分裂を批判した。

抗戦機縛で開いた共産党員  
だ。カネはしない。名譽  
がほしい。民間の力ネで國  
家の恥をこまかすな」とし  
た上で「アジア女性基金の  
力ネなど絶対に受け取らな  
い」と明言した。

基金では、アジア女性基  
金からの一時金を「例外的  
で限定的な」「補償に代わる  
措置」で被害者を分断し、  
戦後補償問題を轍を引こう  
とするものだ」とする  
決議を採択。

また、李さんは十二  
日、都内で記者会見し、  
「一度殺した私たちをもう  
一度殺さうとする基金に対  
し死ぬまで闘う。日本政府  
の心からの謝罪を求める」  
などと訴えた。

同日午後、アジア女性基  
金を抗議する。

A 96.8.12 タ刊

## 不用意な発言 白重を

五一回目の終戦記念日を開  
近づく。政府首脳に周辺諸國  
への配慮を欠く言動が続いている。  
まず、一九八五年の中曾根  
康弘首相(当時)以来、十一年  
に大量の朝鮮難民が押し寄せ、  
戦闘状態に至るシナリオに言  
及。韓国などから「妄言(暴  
言)」との批判を浴び、陳謝す  
る事態になつた。

事業受け入れを拒むのは、民  
間基金ではなく、あくまで日本  
政府による国家補償を求めてい  
るからだが、過去の歴史問題に  
ける「戦後五十年プロジェクト」  
上の漢字が事態を一層  
悪化させている。

首相は、いどこの戦死公報が  
事業受け入れを拒むのは、民  
間基金ではなく、あくまで日本  
政府による国家補償を求めてい  
るからだが、過去の歴史問題に  
ける「戦後五十年プロジェクト」  
上の漢字が事態を一層  
悪化させている。

届いた日にも再び、靖国参拝を  
行う意向を明らかにしている  
が、戦後処理問題にけじめをつ  
めにも、白重を頭みたい。

(森藤裕)

[1]

七

元は朝鮮半島への貢物、朝鮮半島の支那を始め多種多様な茶葉を進めていた「女性のためのアジア和平園芸基金」(原文氏園芸事業)は十二月三十日までに、韓国、台湾に先駆けて十四日からフィリピンへ行つて、一郎受け取りを表明して、認定をめぐりて現在、フィリピン政府と最終的な調整

8/12 '96 車掌 (4)

時金比  
14日安値

## 慰安婦基金、見切り発車

韓国、台湾先送り

受け入れを認めて、大金を  
変更し、今月に入つて基金  
側に伝えた。

三日に現地の新聞などを通して申請手続きなどについて公示。すでに数人の元取引相手が受け取りました。

安堵の認定作業にかかるわざを明してはいるとか、十四日にも橋本龍太郎首相の「おわびの手紙」を添えて「おわび金が支給される。」と明記した。一方で、元慰安婦への接觸も「リラ」を通してよう求めた。「これをめぐり、「リラ」とフィリピン政府の意見が対立。基金額が目標とする十四日からの支給開始をにらみ、現在までのやりの交渉が続けられていました。

フィリピン政府が「リラ」が認定の窓口となることを容認次第、基金額は十方針を堅持している。

は調整が終わり次第、十三日(一時金支給の公示を行ひ、「一部の元慰安婦に対する一時金支給を行ひた」とした)としている。基盤金の支授活動を行う民間団体「リラ・ピリビーナ」は当初、一時金の受け入れを拒否していた。しかしその後、組織としては原則反対を維持しながらも、元慰安婦個人々人の判断によつては

# 初めて台湾女性が実名で訴え 戦後補償 フォーラム 元慰安婦償い金求める

後編

# 元慰安婦償い金求める

アシア女性基金による元  
従軍慰安婦への償い事業の  
平洋戦後補償国際フォーラム  
「ム96」で、実名で名乗りの出



漫記楠さん

8/11/96

朝日 8/11/1966

隠匿され続けて体を壊し、  
四四年七月に送還された。  
BC級戦犯に間違われた夫  
は、一年遅れて帰国した  
が、慰安婦のことは話さな  
かった。十三年前、死の床  
についた夫に初めて告白し  
たが、「過去のこと」と書  
つてくれたという。

温さんは「慰安婦は戦争  
犯罪で、心の傷は残るが、  
もと者いて煙で燐けない。  
最後と思って償い金を受  
ける」

の取りたい」と話している。

の取りたい」と話している。

MOVEMENT GAINING MOMENTUM

# War crime survivors confer on redress

By TOMOKO OTAKE

Staff writer

CHIBA — Activists, scholars and groups supporting war victims have gathered here from all over the Asia-Pacific region to exchange ideas and strategies to win redress for survivors of war crimes ranging from sexual slavery and massacre to forced labor.

Opening the annual International Forum on War Compens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Kenichi Takagi, a lawyer and organizer of the two-day forum, said Friday that the international movements calling for war compensation have grown since the gathering started five years ago.

Progress has been made in many areas, he said, including the Taiwanese movement demanding the Japanese government pay back its wartime debt, and grassroots ef-

orts in Japan to push the government to pay former sex slaves of "comfort women."

Takagi noted that alth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ivate Asian Women's Fund has been a center of fierce debate in and outside of Japan, it's still a positive move.

"I do not regard it as a final form of compensation to the victims, but one step forward and a starting point to realize direct state compensation to individual victims," Takagi said.

During Friday's session, delegates from war victims groups in such places as Malaysia, Indonesia, Hong Kong, Taiwan and Mill Atoll, made appeals for Tokyo to compensate them swiftly and completely.

During his speech, an Indonesian delegate raised his voice and repeated, "We

strongly demand that the Asian Women's Fund make restitution for Indonesian women."

Indonesian victims are currently not included in the fund's aid project.

"The relatives of the Marshallese who were brutally massacred by the Japanese forces during the war are patiently awaiting your government's favorable and humane decision on this issue," said Keijo Bien, representative of Mill Atoll war victims claimants.

Many participants said they attended the forum to learn from each other how to pursue war compensation.

"It is quite definite that survivors do demand that just compensation be made to them, but the exact formula and mechanisms are still in the making," said Dolores Muller of the Tonoas War Vic-

tims Organization.

Bosnian psychologist Mirha Pojskic, who spoke about the results of her research on the consequences of Bosnian Serbs' raping of civilians, said psychological as well as gynecological problems haunt the victims even today.

Christopher Simpson of American University offered a U.S. perspective on the issue surrounding the sex slaves.

The forum also continues today, with much of the discussion focusing on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such pending compensation issues as problems of Taiwanese veterans forced to work for Japan during the war, and Koreans recruited as forced laborers on Sakhalin who remained after the war.

The forum will devote this afternoon to the comfort women issues.

8/10 '96 J.T.

## 台湾は受け取り拒否 「施しいらない」

元慰安婦  
支那婦人団体

8/11/96

【香港10日小林義美】台湾の中  
央通信によると、台灣の元慰安婦  
安端を支援する台北市婦女救援基  
金会は10日、「女性のためのアジ  
ア平和基金」から元慰安婦の  
女性に支給される200万円の償  
い金について、「必要なのは尊敬  
であり、施しはいらない」と受け  
取り拒否を正式に表明した。

台北市婦女救援基金会の沈美真  
会長は、日本側が将来、300万  
円も支給すると説明していると述べ  
、「これは償い金を受け取らせ  
ようとするテーマだ。元慰安婦の貧  
しい境遇を利用し、あざむいて償  
い金を支給することは、50年前の  
日本軍閥のやり方と同じだ」と非  
難した。



〔太平洋戦争は米にも責任〕

自民党的玉沢徳一郎團体  
総局長（防衛省長官）は  
九日、党本部で開いた日本  
協賛（い）軍人会議代表  
者会議において、「第二次  
世界大戦を起した原因  
が日本にだけ極めて歴史的  
過誤があった。米国は日本  
を戦争に引き込んで国民  
を鼓舞する意図もあった」と  
述べた。

自米安保条約については  
米国は戦争を一二年で  
終わらせるつもりだった  
が、日本は四年戦つて米国  
を反省せしめた。このこと  
が日米安保条約を締結し、  
その後の経済繁栄が起きた  
原因だと日本の見方を示した。  
その上で「戦争終結後、  
工業力と精力があるので  
再び死闘を繰り返すのはよ  
くないと考へ（条約を）  
アジア・太平洋地域の平和  
の途にしようとした」と述べた。  
（タメテナカイ）

（田代）  
5/10

（赤木）  
5/10

## 太平洋戦争 米にも原因

自民党的玉沢徳一郎防  
衛省長官は九日、党本部で  
開かれた軍人会議（日本  
協賛軍人会議主催）の  
総局長は九日、同党本部で  
開かれた恩給法・撲滅法改  
善全国代表者会議（日本  
協賛軍人会議主催）の  
あいわいで、歴史認識に関する  
連し、「太平洋戦争の責任  
を日本だけに帰す歴史認識が  
あるが、米国側にも、日本  
を戦争に引き込もうという  
奸詐的な態度があった。そ  
のため、「二年で終わるは  
ずの戦事が四年もの漫戦と  
なった」と述べ、米国側の  
対応も大戦の勃発と長期化  
の一因との見解を示した。

（赤木）  
5/10

米国の対応にも  
大戦勃発の一因

（田代）  
5/10

（赤木）  
5/10

んだ。一時、見直し論があ  
つたが、（米国は）日本に  
国縮力、工業力があるので  
死闘を繰り返しながら  
考へ、（自米安保条約の）  
アジア・太平洋の構によ  
うとした」と述べた。

韓国紙が社説で  
「日本たるもの原因を極まる  
に」軍人会議代表者会議  
講、太平洋戦争について

（赤木）  
5/10

歴史觀があなが、米田も過  
誤があった。日本を戦争に  
巻き込んで、自国民を鼓舞  
し（れいじ）も頑張り、米  
国が日本を自米安保条約に  
込みきりがみられた結果を  
示した。

（赤木）  
5/10

また、自米安保条約に關  
する歴史の梶山第六官房長  
官の癡見について一部の  
「（太平洋戦争を）  
一年で終わらせる」  
（梶山第六官房長官）の際に  
四年も続いた。再び戦争の  
逃避のため（条約を）締  
結を表明した。



元慰安婦

# 国民基金代表と面会

## 認定作業の関与を要請

「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

ア・サンチョさんは

ア。

サンチョさんは「私たち

があくまで国家補償を求め

るとの立場は変わらない

と強調したが、「ヘン

ソンさんはよう困難な状

況の中で償い金を必要とす

る人を支援していくことも

私たちの立場だ」と説明し

た。

た。

私たちは「初めは

情報が少なく判断ができない

かったが、基金の冊子を読

んで受け取りを決めた。多

くの被害者は受け取りが

りており、あくまで受け取

りを拒否しているのはどう

か

た。

## **Filipino women discuss receiving Fund money**

Members of a Filipino women's group supporting former sex slaves met with officials of Japan's Asian Women's Fund in Tokyo Thursday to discuss the procedures of providing aid to those women.

Nelia Sancho, leader of LILA-Pilipina, told reporters after their meeting that her group requested that it wants to be included in the process of qualifying victims.

The group also asked that the fund not contact the survivors directly but through the group.

Also attending the meeting was Maria Rosa Henson, former a former sex slave who has expressed her willingness to accept \$2 million in atonement money from the fund.

Sancho and Henson arrived in Tokyo earlier in the day to attend an international forum on postwar compensation. The two-day symposium begins today in Makuhari Messe in Chiba Prefecture.

LILA-Pilipin has recently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for assisting women who want to accept money from the fund.

Sancho stressed that the group's decision to cooperate with the fund was made through a long process of searching for the best alternative to respect the calls of former comfort women.

Henson said that since she came out publicly with the position to accept the money, she has been accused by some Japanese supporters of former sex slaves.

3/94 J.T.

# 1961年 「償い金を受ける」

式に要請した。これに対する原理事長は「歓迎する」と返答。離航していた基金委員会がようやく動き出した。されば、ロサさんのは、基金の一時金を受け取ることを拒否する態度を示していた。しかし、ロサさんはこの日、会談後の記者会見で「基金については四分なりに研究した。基金に反対するはがの被害者のことを

考えるとなかなか自分では  
言い出せなかつたが、基金  
を受けることを決めた」と  
語つた。

が支給する「儲け金」を乞うて受け取るかどうかをめぐる問題針の邊で、分裂する事態に陥った。

1994年に結成された元慰安婦と支援者の団体「コウ・ピリ・ナー」が、分裂した新団体「マリヤ・ローラズ」のメンバーの多くが、マニラ市内で記者会見し路頭を発表。コウは公式に基金への反対を表明し

月方感にたるう。児童は元慰安婦たちに横金の受け取りを勧めるような行動を取っている。これは日本政府からの誠意ある謝罪と補償を求めるといふ会の方針に反する」と「アラ」を批判。基金からの横金を一切拒否していく姿勢を明らかにした。会員の慰安婦は10人とい

元慰安婦「一時金」を協議  
元従軍慰安婦への補償対策を検討している「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アジア女性基金理事会・原文兵衛前参院議員長)は八日、呼びかけ人と理事、運営審議会の合同会議を開き、元慰安婦への「一時金」の支給方法などを協議した。この結果、フィリピンから先行支給する方向が決まった。

同基金は終戦の日の今月十五日をめどに、対象となる韓国、台湾、フィリピンの元慰安婦へ一時金を回し支給するよう調整しており、十三日に改めて理事会を開き、協議を続ける。

&lt;第三種郵便物認可&gt;

# 「慰安婦記述」の削除を出発点に

## 自由主義史観研究会 全国大会終わる

山形・盛岡温泉で開催された自由主義史観研究会（代表・藤岡信勝）は、第一回全国大会は十日、本紙連載中の「教科書が教えてない歴史」執筆者の一人、占部賢志・福岡県立高麗高校教諭が「生徒の心に灯をともす歴史授業」と題で講演。各地の教員が歴史教育の実践りポートを発表。「週刊SAPIO」（八月十九日、九月四日合併号）掲載のマンガ「ママニズム宣言」（小林よしのり）にある従軍慰安婦についての疑惑を、授業に使ったならどうか（福島県会津若松市の医師）、「日本は」の題で講演。各地の教員が歴史教育の実践りポートを発表、「中学校教科書からの『従軍慰安婦』記述の削除を運動の出発点に」と訴えて二日間の日程を終えた。

講演で、占部教諭は歴史教科書文中の「日本は」いう主語は「教える側も教えられる側も他人のものようを感じさせる」と説明、授業で「わが國」と読み替えることを提唱した。自分自身の問題として目をそらさずには記述内容を見つめることで、生徒は「まじよ」「本当にどうなの？」と疑問を持ち、主体的に勉強を始めるとした。

また、海湾戦争の例を引き、「世界にはプロバサンダが確かに存在するが、それがどう仕分け、洞察するかが重要であり、歴史教育が求められている」。平和教育については「悲惨を場面で強調するだけではなく終戦を決める過程のドラマを知ることで、平和への政策的、戦略的なアプローチが学べる」と話した。

山形・盛岡温泉で開催された自由主義史観研究会（代表・藤岡信勝）は、第一回全国大会は十日、本紙連載中の「教科書が教えてない歴史」執筆者の一人、占部賢志・福岡県立高麗高校教諭が「生徒の心に灯をともす歴史授業」と題で講演。各地の教員が歴史教育の実践りポートを発表。「週刊SAPIO」（八月十九日、九月四日合併号）掲載のマンガ「ママニズム宣言」（小林よしのり）にある従軍慰安婦についての疑惑を、授業に使ったならどうか（福島県会津若松市の医師）、「日本は」の題で講演。各地の教員が歴史教育の実践りポートを発表、「中学校教科書からの『従軍慰安婦』記述の削除を運動の出発点に」と訴えて二日間の日程を終えた。

最後に、藤岡教授が来春から中学校で使われる社会科の全教科書（七冊）に登場する「従軍慰安婦」について、①正式名称ではない②慰安婦が強制連行された証拠は一つもない③日本側が騒ぐまで、韓国側から強調連行の話は出なかつた④日本で決着済みの国家補償を持ち出すのは、韓国の主権侵害などとして、「眞偽が定かでないものを教科書に載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と呼びかけた。

Sorry for causing trouble over 'fake refugees' remark

## Kajiyama apologizes to Seoul

Chief Cabinet Secretary Seiroku Kajiyama apologized Friday to South Korea for saying an emergency on the Korean Peninsula could bring armed "fake refugees" to Japan and street-fighting in Japan between rival Korean factions.

Kajiyama said he apologized over the telephone to South Korean Ambassador to Japan Kim Tae Zhee. He said he told Kim, "I'm sorry to have troubled you. The remarks were improper comments for a chief Cabinet secretary."

On Thursday, Kajiyama said in a speech to a business group that if armed conflict were to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Japan would be affected by, for example, a flood of refugees, including ersatz ones who could be carrying arms.

Kajiyama also suggested pro-Seoul and pro-Pyongyang forces in Japan may engage in street-fighting, which the Self Defense Forces have no capability to cope with.

Kajiyama's remarks drew protests Friday from the

South Korean Foreign Ministry.

"We can't but express shock and deep regret about such remarks, which were not friendly toward the nationa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Foreign Ministry spokesman said in Seoul.

The remarks could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Japanese people become suspicious and watchful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are abiding there lawfully and making positive contributions to Japanese society, he said.

8/10 '96 J.T.

日本で戦争責任・母国で敵視…韓国・朝鮮人元BC級戦犯



## 韓国の若手監督がメガホン

埋もれた歴史 映画に  
海峡越えて 若者の輪

監獄・慰留人　立場に置かれていたが、  
元DCI長官記　因幡吉郎による政治犯判決  
本の廻地下にあった朝　政策の責任を問われ、死  
一九四一年四月　では日本軍の過酷な捕  
鮮年半から三三百人余　刑二十三人在籍三百四十  
の青年が日本本に輸送さ　八人が「有罪」とそれ  
れ、その多くが死へ、マ　た、監犯犯七人  
レーニなどの収容所で監禁され、日本政府の譲歩と  
民間人収容所で監禁監禁を　償償を求めた訴訟の判決  
させられた。彼のほかは、九月九日に東京地獄  
最末端の軍人監獄という　で言い表される。

アジア・太平洋戦争の最中、日本軍の軍人宣傳として動画され、「日本人」として殺された韓国人・朝鮮人の九百三十九名が慰霊祀られた。日本の戦争責任を責められながら、母國では「民族の敵」などとみられ、戦後も懲りられる事はなかったなど。半世紀を超えて、韓国の歴史映画監督が「埋もれた歴史を復元したい」と、彼らの凶人由来通りにキュンタンリー・映画の製作を決意。共鳴した日本の若者ただがカンパノも脚本を担当した。監督は「映画の歴史の過去を振り越えるきっかけになれば」と語っている。

映画の製作を通じて、いよいよ本格的な映画監督としての才能を開花させたのは、ソウル芸術専門大学映画学科講師の金尚順（キム・サンス）さん（42）—写真。

日本側、カンパ支援

判では考慮されなかつた。復元したい」。映画製作  
死刑を宣告された人は無念  
のまま刑死した。刑期を終  
えた人には、周囲の非難  
が絶続つてゐた。  
「元殺犯たちの体験は確  
固でも知られていない。朝  
日新聞といふ雑誌の中でも彼ら  
自身、長い間語り合つてし  
かつたからだ」と森さんは  
うつ。「埋もれてしまつた  
時に資金流通の問題が直ぐ  
日本の現代史を もう一度  
のしかかつた。

皆日本に来白したる英國兩國議院のな、議事も、正確に  
監視し、故國の悪いなどを  
知つてもいした」  
聞いた。  
——「日本の映画は、皆が、  
——の映画で、訴えたい、映画製作の目的ですか。」  
——「何ですか。」「私の映画は、向かうを研究  
「あさひ日本に、映画館たゞするがものではない。  
の映画をした。故に、『愛國心』などはない。  
は、英國で、御用被りで、している。なげ、『甲子年』や、『義理の娘』  
だけではない、當時の問題が、現した。『日本をもつて國  
體されたら、立場を知らぬ日本へ、帰した方がいい』と助言  
連合國の人々から、今も、してくれる人もいる。だが  
「日本本と、同じ戦争犯罪、大切なのは、眞に許さう  
人」だとおれで、いるから、ことだと思つ。「和解」を  
だ。元戦犯の日本政府の、ひとりのテーマにすべ  
轉

20代に見てほしい

## 未来へ「和解」がテーマ

「蘇聯的政策」；  
蘇聯的政策。  
」。

### 主な教科書の抜すい

## 慰安婦と戦後補償

あるから必ずしも敗れでござるが、現代史としてされど決して愚鈍とされていたわけではない。多くの人々がの事実はさうに承知していた。

それが、昭和のわった段階でなぜ革新していくのであるが、あつたがたがじつて、今日このテーマに特別な組いが組んで

創の興味をもはえることができ  
るといふよ。

多くの朝鮮人・中国人が軍  
隊に入られた。また、女性を  
慰安婦として従軍させ、ひどい  
あつかいをした。なほ、箇離書  
かうもいふる記述を読むと、社  
会の歴史の教科書といつよりも  
数学か物理の教科書のように思  
われてくる。無用な感情を入れ  
れ

親を奪われた少年たちが、まだま  
つそれにも耐えて戦後半出立を  
生きてきたことに触れていい  
ない以上、私にはいずれも教科書  
としては、欠陥商品、に思われる  
れた。

## 木で鼻くくつた記述

声高「国家賠償」スジ違い

創の興味をもはえることができ  
るといふよ。

多くの朝鮮人・中国人が軍  
隊に入られた。また、女性を  
慰安婦として従軍させ、ひどい  
あつかいをした。なほ、圖書を  
さういふ記述を記載し、社  
会の歴史の教科書といつよりも  
数学か物理の教科書のように思  
われてくる。無用な感情を入れ  
れ

七月半ばの「ニュース番組で、中国人在米就安焼にキャスターが煽り、ソ連の大型爆弾也日本がインタビューショーン。筑波氏が謝罪と補償の失つたあと、新しい对立立場を示す人々は手がかりとして、ほほいかな向ひかれたたゞ、彼女は迷ひとなく「擅權する」と答へてゐる。まさに歴史的問題に付したと私は思ふ。筑波が説いてゐる。昨今、これを国際化して、世界に宣傳するかしないかという中で、その想いは依然としてある。

開拓する「心」になるだつや。日本はサンフランシスコで、平和条約締印とともに、歎息の如きの間で互いに過去に対する求償は放棄するとしている（第十九条）、といふ事実の間ではその「心」を失つて明文化した革茶条約を締印していくから、いままで國家賠償を問われる所はない。にわか

## こんな教科書を使っている

評論家 上坂冬平

上坂  
冬子

•



この日、資料館には多く  
の人が訪れた。被爆三重の  
女子大生<sup>18</sup>は「戦争中の  
日本の加害についての説明  
が少ない」と、懸念に不満  
を漏らした。

年4月の定期  
考、舞鶴職員  
ていたが、先  
り船を去つた。

長崎市立図書館

196 ヒロシマ・ナガサキ

平和

13

# 侵略と被爆のはざまで…

論爭

争が善き事」「つかまつて示寫真の盗賊は4回も上った。ヒトコボは約4倍が盗難だ。盗難され「生糞の『愛路』」は6カ所で消えた。

「市民の会」は監視批判によるもので、8.9年の平

伊藤さんは反論する。『煙は突然、空から降ってきていたのではなく、戦争の中で使われた。それを示すには日本の方針を明らかにする必要がある。南京虐殺の表示も平和尊愛もそれが出

と罵られる理屈屋の米軍  
世保基地。第7艦隊の旗  
「ブルーリッジ」が、原  
心をはさんだ7月から10  
までの日程で佐世保港に  
進した。

オランダ・ハーラーの國學院法裁判所の庭萱台で強く主張した。だが、国は憲法性を全く意識しなかつた。

1/8



日本の加害責任と原爆をめぐり大きく揺れた豊崎原爆資料館=9日午後1時すぎ、金沢検察本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 「洋備室」来年度充足へ

発表から2年、やつと始動

政府は、昭和五十年の日  
相が「九六四年八月に第義  
堂室を来年度、総理府に施  
事業として村山富蔵前首

足を固めた。外務省や文部省などが歴史課  
題に絡む問題が起きること  
を懸念し、所管官庁を引き  
受けたことを担当しているた  
め、論議の作業を総理府で  
進めることとした。「歴史  
を賄うする」（村山氏）事  
業がようやく具体化に向

て設置する。中立性や背景  
性を確保するため、第三者  
による運営監査機関も設け  
る。

昨年六月、学者らが組の  
代表による有識者会議（座

長：石川忠雄前慶應義塾  
長）が、事業内容に関する

提言を高野長臣に提出し、

同センターは、近現代の

日本とアジア近隣諸国との

かかわりに関する史料や文

献・図書を集め、国内外の

利用者に提供する構想。

しかし、所管について、

関係官庁が「外交」にま  
た、「歴史」

に進めるべきだと主張し  
た。

上野謙三は外務省や文部

省、国立国会図書館など

から人材を集め、センタ  
ー長の選任から手をつけ

る。

動き出したことになるが、セ  
ンター設立までにはなれば  
折も予想される。設立を急ぐため、事業計  
画の策定をまたずに資料  
収集などの実務を積極的  
に進めるべきだと主張し  
た。以上放題でない」と判断、  
とりあえず準備室充足を  
決め、関連経費を来年度  
予算で要求することにし  
た。

上野謙三は外務省や文部

省、

立

國

會

圖

書

館

等

の

新

た

る。

